

사회초년생을 위한 세금 기초 상식

월급 사수!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총정리

김지훈 지음



내 월급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
사회초년생의 스마트 절세 필독서.

초보도 이해하기
쉬워요!
- 문**

덕분에 절세
성공했어요!
- 권**

사회초년생
필수템이에요!
- 황**

1

월급은 스쳐 갈 뿐이라고?
숨겨진 돈을 찾아라!

월급은 스쳐 갈 뿐이라고? 숨겨진 돈을 찾아라!

직장인이 모르는 세금의 민낯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다. 당신의 월급에는 이미 여러 세금이 떼어져 있고, 앞으로 내야 할 세금도 있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매년 수백만 원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만 해도 월급이 나오면 기분 좋아하기만 했다. 계약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1650만 원 정도였다. 35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몰랐다. 급여명세서라는 게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도 이해 안 됐다. 그냥 월급을 받으면 열심히 쓰고, 남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하지만 세금의 민낯을 제대로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400만 원을 더 가지고, 누군가는 400만 원을 더 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건 능력 차이가 아니었다. 그냥 세금을 알고 모르는 차이였다.

당신이 받는 월급은 벌써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이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이미 빠져 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면 자신이 얼마를 낸 건지,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인다.

더 문제는 직장에서 거뒀던 세금이 모두 올바르게 처리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잘 처리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도 있고, 당신이 직접 챙겨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 기부금을 냈으면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 투자로 손해를 봤으면 그걸 다른 수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모르면 당신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손해를 본다.

지금부터 당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느 부분을 당신이 직접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 것이다. 이 과정이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하다. 그리고 이 간단한 지식이 당신의 금융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세금, 더 이상 손해가 아니다

나는 회사 첫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적혀 있던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사라진 돈이 있다는 건 느껴졌지만, 그게 뭔지는 전혀 몰랐다.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갔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세무사 친구와 밥을 먹게 됐다. 내 월급명세서를 보더니 친구가 물었다. 당신 기부금은 어디 기부하는지, 투자로 손실본 거는 신고했는지, 연금 외에 다른 공제 항목은 챙겼는지. 나는 그 질문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다. 기부금? 투자 손실? 나는 그냥 월급을 받고 쓸 뿐이었다. 그러자 친구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이미 잃고 있다고. 매년 수백만 원을.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수백만 원. 그건 내가 매달 아껴야 하는 금액이다. 라면 값도 아껴 쓰는 판에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다니. 나는 그때부터 세금이라는 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세금은 나를 지키는 도구였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체계였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으면 으레 귀찮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알아서 빼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회사가 기본적인 세금은 빼 주지만, 당신이 직접 챙겨야 할 세금 혜택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재정 상태는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그 깨달음 이후로 매달 받는 월급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월급은 단순히 쓸 돈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돈이 됐다. 세금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당신도 이제부터 그렇게 볼 차례다.

내 월급을 지키는 첫걸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쯤, 나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계약 연봉이 3,000만 원이었는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300만 원 정도였다. 7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회사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급여명세서를 몇 번이나 들었다 왔다가 반복했다. 무슨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단어들이 눈에는 들어왔지만, 내 월급에서 왜 빠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의무적으로 빠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세금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해는 더 많이 걷혀 있고, 어떤 해는 더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나는 회사 세무 담당자 책상 앞에 앉았다. 뭘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추천하는 대로만 진행했다.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떨리기도 했다. 매번 "올해는 환급금이 10만 원입니다" 또는 "10만 원 더 내셔야 합니다" 정도의 결과를 받았다. 그뿐이었다.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은 품어본 적도 없었다.

상황이 바뀐 건 대학 동창 세무사 친구를 만난 후였다. 그 친구는 내 급여명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넌 기부금 공제를 안 했네. 올해 얼마나 기부했어?" "네? 기부금이 세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대답에 친구는 웃음이 나온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부금 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기부한 돈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매달 종교 단체와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세금 신고할 때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친구는 "이거 신고하면 20~3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금은 내가 능동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즌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내가 직접 나의 세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공제 항목이 내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했다. 투자를 한다면 투자 손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들도 모두 세금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깨달음은 나의 재정 관리를 완전히 바꿨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줄일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세금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월급을 지키고, 재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였다.

세금이란 어떤 걸까?

2

월급명세서 속 비밀
코드, 급여의 세금 과학

월급명세서 속 비밀 코드, 급여의 세금 과학

떼는 세금, 돌려받는 세금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통장에 들어온 첫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뭐가 빠진 건지 몰랐다. 월급명세서를 봐도 수많은 숫자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회사 경리팀에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냥 이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니깐 말이다.

그러다 문제를 깨닫게 된 건 우연이었다. 세무사로 일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다. 나는 월급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떨어진다고 불평했다. 친구는 웃으며 내 월급명세서를 봐달라고 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해주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도 아마 경험했을 거다. 월급에서 떼어지는 세금과 보험료들이다. 소득세는 당연하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까지. 항목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내가 버는 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떼는 이유가 있다.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보험료는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도 내 통장을 보면 답답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친구는 내게 물었다. "너는 돌려받을 세금을 알고 있냐"고.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떼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다는 거였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있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투자하다 손실을 본 경우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의료비와 교육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다음이었다. 친구가 말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당신의 개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말을 듣고 지난 몇 년을 돌아봤다. 나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나오면 그걸 받았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친구와의 대화 이후 내 인생이 바뀌었다. 떼는 세금과 돌려받는 세金的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떼는 세금은 이미 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돌려받는 세금은 다르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년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세금 관리는 번거롭다. 복잡한 서류도 많고, 몇 가지 규칙도 외워야 한다. 하지만 이 번거로움을 견디는 직장인과 견디지 않는 직장인은 1년에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난다. 돌려받을 세금을 놓친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마법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마 대부분 '아, 또 그 시즌이 왔구나' 하면서 회사의 안내를 따라 서류만 제출하는 것 아닐까.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깨닫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금액인지는 물론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를 돌려받든 그게 맞는 거라고 무작정 믿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내 세금 환급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회사원인 친구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너 연말정산 따로 챙기고 있어?" 순간 멍했다. 뭘 챙긴다는 건가. 회사에서 다 해주지 않나. 친구는 웃으며 설명해줬다. 회사는 기본적인 세금 공제만 진행할 뿐이라고. 기부금을 냈으면 그걸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로 손실을 봤으면 그걸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매년 놓치고 있던 게 뭔지 깨달은 순간 말이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머지를 챙기는 과정이었다. 만약 내가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뒀다면, 그리고 투자 손실을 기록해뒀다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을까.

연말정산이라는 건 결국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평소에 과하게 공제된 세금을 1년에 한 번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다. 하지만 회사는 일단 많이 걷어놓고, 연말정산 때 '실제로는 이 정도만 내면 되니까 돌려드립니다' 하는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회사가 돌려주는 것은 회사가 계산한 기본 공제액일 뿐이라는 점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기부금 공제를 못 받는다. 투자 손실을 보고했다는 증거를 안 내면 손실 공제를 못 받는다. 의료비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안 내면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다. 모두 당신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하다. 1년 동안 기부금 영수증, 투자 거래 내역, 의료비 영수증 같은 걸 모아두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내 경험상 작은 항목들을 하나하나 챙기면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환급을 받게 된다.

혹시 '아, 그런데 내가 뭘 챙겨야 하는지 몰라서 못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괜찮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뿐이다. 실제로 뭐가 공제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나중에 찾아봐도 된다. 일단 자료부터 모아두고 나서, 연말정산 전 한 두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찾으면 충분하다. 이게 수백만원의 손실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놓치면 후회할 소득공제&세액공제

직장 첫째, 나는 월급을 받으며 한 가지 큰 착각을 했다. 회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내가 벌어야 할 모든 세금을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세무사인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내게 물었다. 당신은 올해 기부금을 얼마나 했냐고. 의료비는? 투자로 손실은 안 봤냐고. 나는 그 질문들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 친구가 설명해줄 때까지는 말이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들은 기본일 뿐이었다. 급여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당신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 당신이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세금 혜택들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친구는 나에게 기부금 공제를 먼저 설명했다. 나는 그 해 어떤 단체에 소액을 기부했다. 정말 작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수증을 챙겼냐고 물었다. 당연히 안 챙겼다. 그러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어서 그만큼 내 과세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올해 3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그 300만 원은 세금 계산할 때 내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은 의료비였다. 나는 그 해 치과를 몇 번 갔다. 교정도 했다. 당신이 낸 의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 단순히 의료비를 내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세금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 일이었다.

가장 충격은 투자 손실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해 주식에 좀 투자했고 약간의 손실을 봤다. 그 친구는 그 손실도 세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손실을 본 만큼 당신의 다른 소득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손해를 봤지만 적어도 세금은 덜 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세금은 내가 능동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말이다.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은 가장 기본적인 공제일 뿐이었다. 내가 기부금 영수증을 모으고,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투자 내역을 정리하면 그것들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었다.

그해 나는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다. 소비할 때마다 어떤 항목인지 정리했다. 작은 기부금도 챙겼고, 의료비도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했다. 투자 손실도 정확히 계산했다. 당신이 생각하면 귀찮은 작업이다. 하지만 그 귀찮음이 몇 백만 원짜리 환금으로 돌아왔다. 그해 연말정산에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처음에는 계산이 맞나 싶어 확인했을 정도였다.

지금 당신도 나처럼 월급만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당신의 상황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기부금, 의료비, 투자 손실, 교육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신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도구다. 올해부터라도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차이를 느낄 것이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체크카드를 꺼내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카드의 사용 방식이 세금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니까 쓸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결제하면 되니까 더 편했다.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다.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쓰는 것과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비액 공제 대상이 된다.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20퍼센트가 공제되는 구조다.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만 원이 소비액 공제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어떨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당신이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그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같은 액수를 쓰더라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세금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신용카드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식료품이나 휘발유 같은 특정 항목은 공제율이 다르다. 식료품은 신용카드 공제율이 1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순히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어떤 항목을 신용카드를 결제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은 의료비와 교육비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직접 돈을 지출한 증빙이 있으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그래서 아이의 학원비나 본인의 병원비 같은 항목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남겨두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렇다. 일반적인 소비는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소비액 공제를 최대한 받고,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정 항목은 따로 관리하면서 직접 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습관대로 카드를 써왔다. 하지만 한 번 깨달으면 매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3

돈이 돈을 버는
곳에도 세금이?
현명한 투자자의 절세 공식

돈이 돈을 버는 곳에도 세금이? 현명한 투자자의 절세 공식

ISA, 만능 통장의 진짜 힘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다. 같은 액수를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어떤 사람은 더 낸다. 그 차이가 뭘까. 바로 ISA 통장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이다.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ISA가 뭔지 전혀 몰랐다. 주식을 사고팔고,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다 직장 선배가 한마디를 했다. ISA 통장으로 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투자 수익에 세금이 없다고? 불가능해 보였다.

알아보니 정말이었다. ISA는 특별한 통장이다. 이 통장 안에서 주식, 펀드, 적금 같은 여러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번 이익에는 거의 세금이 안 붙는다. 엄밀하게는 세금이 14.4%까지 붙을 수 있지만, 통장 내에서 손실이 나면 그걸 이익과 상계한다. 쉽게 말해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엔 이게 정말 가능한지 의심했다. 정부가 왜 이런 좋은 통장을 만들었을까. 세금을 덜 거둔다고? 그런데 깨달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길 원한다. 투자를 늘려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손해보지 말라고 해주는 선물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일반 통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다르다.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여기에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약 15만 4천 원을 정부에 준다는 뜻이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46만 2천 원을 낸다. 매년 이 차이가 쌓인다. 5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ISA 통장도 조건이 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만들 수 있다. 다만 한 사람당 1개의 ISA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해에 여러 개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연간 입금 한도가 있다. 2천만 원이다.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투자를 하려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ISA부터 열어야 한다. 정말이다. 일반 통장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같은 투자 수익을 거둬도 세금이 훨씬 많이 나간다. ISA 통장 하나로 월급과는 별개로 투자를 관리하면 된다. 급여는 일반 통장에서 받고, 투자 자금만 ISA로 따로 운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식, 펀드, 코인, 어떤 투자가 유리할까?

주식, 펀드, 코인처럼 돈으로 돈을 버는 곳에는 모두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같은 투자라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다.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월급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뭔가 해보고 싶었다. 저축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펀드를 시작했다. 별생각 없이 일반 통장에서 펀드에 넣었다. 1년 뒤 펀드가 200만 원 수익이 났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적인 투자 펀드 수익에는 15.4퍼센트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았다. 2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돈을 벌어도 세금을 못 피하면 실제로 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같은 펀드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진다. 일반 통장에서는 15.4퍼센트를 내야 하지만, ISA라는 특별 계좌에 넣으면 처음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다. 같은 수익을 냈는데 어디 계좌를 선택하느냐로 30만 원을 날릴 수도, 챙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 매매 차익, 즉 주식을 사고팔 때 버는 돈도 세금이 붙는다. 일반 통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 22퍼센트를 내야 한다. 펀드보다 훨씬 높다. 같은 200만 원 수익이면 44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ISA에 넣으면 처음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 수익도 세금이 붙는데,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투자 계좌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코인으로 번 돈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았을 때 번 돈에는 20퍼센트 세금이 붙는다. 200만 원 수익이면 4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투자 상품별로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펀드나 주식은 ISA를 쓰면 처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코인은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 부담이 2배, 3배 차이 난다는 뜻이다.

당신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수익성보다 먼저 세금을 생각해야 한다. 어디 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수익이 크더라도 세금이 크면 결국 손해본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의 최종 자산은 몇 년 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양도소득세, 매도 전 꼭 알아야 할 것

주식이나 펀드를 팔 때 생각 없이 진행했다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는지 알고는 깜짝 놀랐다.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 실제 이익은 절반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세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주식이나 펀드를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부른다. 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당신이 100만 원어치 주식을 150만 원에 팔았다면 5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바로 이 50만 원에 세금이 붙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을까. 주식의 경우 이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펀드도 비슷한데 경우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 수익에만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100만 원에 샀던 주식을 80만 원에 팔았다면 20만 원의 손실이 난다. 이때 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같은 해에 다른 투자로 50만 원의 이익이 있었다면 50만 원에서 20만 원의 손실을 빼서 30만 원의 이익으로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50만 원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30만 원에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싸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서 주식과 펀드를 거래하면 손실 상계가 복잡하다. ISA 계좌를 쓰면 이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ISA는 투자 손실과 이익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특별한 계좌다. 한 계좌에서 여러 투자상품을 사고팔면서 손실과 이익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ISA 계좌에서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뿐이다. 연말정산 때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좋은 점이 있다. ISA 계좌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 수익에는 세금이 0원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투자를 시작할 때 ISA를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다. 같은 투자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실제 자산이 크게 달라진다. 투자로 번 돈을 제대로 챙기려면 투자 상품보다 먼저 절세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노후를 위한 선물,
연금과 세금의 환상 조합

노후를 위한 선물, 연금과 세금의 환상 조합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필수 전략!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가? 많은 사회초년생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직장에 들어간 첫 해, 나는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충분하겠지 싶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도 그냥 따라갔다. 세금 환급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냥 넘어갔다. 세금과 연금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무사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을 받았다. "넌 개인연금을 하나도 안 들었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개인연금이 무엇인지 몰랐다. 국민연금과 다른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다. 친구는 설명해주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이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월급에서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계산을 해봤다. 매달 5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내면, 연 600만 원이 공제된다.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세금이 줄어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후를 위한 돈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 그대로 일석이조였다.

내가 그전까지 한 것은 뭐였나. 국민연금만 내면서 "나는 연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월급의 약 40%에도 못 미친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면서까지 권유하고 있었다.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나 싶었다.

개인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같은 것들이다. 각각 세금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월급에서 공제되어 소득세를 줄인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자동 공제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내가 직접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간다.

나는 그 다음부터 행동을 바꿨다.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을 추가했다.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자금도 쌓이는 느낌이 들었다. 세금이라는 게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내 자산을 늘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략을 일찍부터 세워야 한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몇 년을 날렸다. 사회초년생 때는 월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사 친구가 던진 한 마디가 컷가에 맴돈다. "너 지금 연금저축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노후는 너무 멀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이 더 급했다.

그러다 직장 선배와 술자리에서 연말정산 얘기가 나왔다. 선배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려고 전략을 짰다고 했다. 특히 연금저축이 가장 강력한 공제 항목이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월급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처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도구라는 뜻이었다.

당신이 지금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빠진다. 그 빠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이 소득에서 빠진다. 소득이 줄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든다. 줄어든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정말 단순한 구조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한 달에 5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치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은 대략 6%다. 연 600만 원을 넣으면 36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겨우 36만 원인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한 해의 숫자다. 10년이면 360만 원이다. 30년이면 1,080만 원이다. 월급 50만 원도 못 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느끼지 못하는 돈이라는 거다. 세금을 돌려받는 돈이니까. 월급에서 빠진 세금을 다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니 실제로 들어올 때 더 크게 느껴진다. 저축하면서 동시에 세금 환급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제성이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인다. 의지박약한 사람도 자동이면 된다. 또한 연금저축은 그냥 묵혀만 있지 않는다. 펀드나 적금처럼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산도 불린다. 이게 바로 정부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강조하는 이유다.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 매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공제를 못 받는다. 따라서 가능한 한 400만 원에 가깝게 맞춰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월 33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작지 않은가. 정말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

IRP, 당신의 은퇴를 든든하게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추가 저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바로 IRP다.

내가 IRP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낼 뿐이었다. 그 외에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 선배에게 물어보니 답이 달랐다. IRP라는 게 있다며 설명해줬다. 개인퇴직계좌라고 불리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다.

IRP는 이렇게 작동한다. 당신이 월 1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그 금액은 월급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즉,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IRP에 넣으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원래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을 미리 빼두는 거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도 나중에 찾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세금 혜택이다.

"그런데 나중에 찾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당신이 의심할 만하다. 맞다.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다. 30년을 기다리면서 그 동안 IRP 안의 돈이 계속 불어난다. 30년 동안 붙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봐라. 일반 통장에서 투자하는 것과 IRP에서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많은 사회초년생이 이걸 모른다. 그래서 그냥 월급을 받고 일반 통장에 넣는다. 세금도 내고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낸다. 두 번 낸다는 말이다. 반면 IRP를 쓰면 한 번만 낸다. 게다가 30년을 버티면서 복리로 불어난다. 차이가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대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30대라면 62세 은퇴 때까지 IRP를 굴리기만 해도 노후자금이 완전히 달라진다.

IRP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면 그걸 IRP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회사를 옮길 때나 그만둘 때 한꺼번에 나온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IRP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통장에 넣으면 그 순간 세금 폭탄을 맞는다. IRP로 옮기기만 해도 절세 효과를 본다.

당신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지금이 IRP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급여도 적으니 세금 공제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은퇴까지 가장 오래 남았다. 30년을 복리로 붙리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다. 월 50만 원만 넣어도 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다. 늦을수록 손해다. IRP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당신의 은퇴를 든든하게 만드는 세금 무기다.

5

내 집 마련의 꿈,
세금으로 앞당기는 비법

내 집 마련의 꿈, 세금으로 앞당기는 비법

주택청약, 소득공제 활용법

내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은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품고 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월급을 받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계획만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는 건 알았다. 다만 그냥 돈을 넣고 빼는 통장이라고만 생각했다. 회사에서 주는 서류에 따라 가입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갔다. 특별히 챙길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사 친구가 한 마디를 했다. 주택청약에도 소득공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소득공제라는 말부터가 낯설었다.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떼가는데, 거기서 또 뭔가를 공제한다고? 친구가 천천히 설명해줬다. 주택청약에 넣은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금을 낼 때 그 액수를 빼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즉,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연봉 3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거기서 일정 비율의 소득세가 빠진다. 하지만 내가 주택청약통장에 1년에 3백만 원을 넣었다면, 실제로는 2천7백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에 넣은 돈이 얼마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연간 수백만 원대의 손해를 본 셈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본인이 직접 청약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모르고, 회사에서 해주는 기본 공제만 받다가 정산을 마친다. 그러면서 매년 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친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첫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회사 인사팀에서 알려주는 대로 서류를 제출한다. 그게 전부인 줄 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택청약에 들어가는 돈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때부터 달라진 마음으로 주택청약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절약 팁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절약 팁

처음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얼마나 준비할 것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사면서 깨달은 것은 이 과정에서 세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다.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이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손해를 입고 있었다.

지인의 부동산 중개사 친구와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 친구는 "집을 살 때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당연한 얘기처럼.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구매 시기와 방식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 집을 사는 경우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세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 산 집이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국가가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높은 세금을 낸다.

보유세는 집을 산 후에 매년 내는 세금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의 존재를 알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은 다르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유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장애인 주택 구매 시, 환자용 주택 등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타이밍의 중요성이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11월에 사는 것과 12월에 사는 것의 세금이 다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이 되는 시점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모여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된다. 집을 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천만 원 대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다. 그만큼 세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세/월세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기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집을 빌려 사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들만 있는 줄 알았다.

회사 다닌 지 2년 차쯤, 동료가 월세로 낸 돈을 연말정산에 올렸다고 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내가 매달 월세로 내던 돈의 일부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해 월세는 60만 원이었다. 연 720만 원이다. 이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손으로 계산해봤다. 수백만 원 대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전세금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전세로 살 때 내 돈 3000만 원을 맡겼었다. 그 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나는 그냥 찾아올 날을 기다리기만 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 몇 년을 살면서 놓친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기가 무섭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제를 받으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영수증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는 그 종이다. 없으면 계약서로도 가능하다. 은행 통장에 월세가 입금된 기록이 남아있으면 더 좋다. 전세금은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면 된다.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월급에 대한 소득공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준다.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혜택을 놓치면 매년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이라도 지난해 월세나 전세금 증거를 찾아보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꼭 챙겨두자. 매달 나가는 돈인데, 이걸 챙길 이유가 충분하다.

6

숨어있는 세금 보물찾기,
0원의 기적을 만들다

숨어있는 세금 보물찾기, 0원의 기적을 만들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전부인 줄 알았고, 영수증 따위는 그저 구겨진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사 친구와 대화하다가 깨달았다. 의료비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 년간 병원을 얼마나 다녔는지 생각해보자. 감기로 몇 번, 치과 몇 번, 약국 몇 번.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이런 것들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결국 700만 원대였다. 회사 자동 공제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가 말이다.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다르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내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는 따로 계산된다. 그래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하다. 하지만 복잡할수록 많은 사람이 놓친다는 뜻이다. 당신이 챙기면 이득이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낸 모든 의료비를 합산한다. 그리고 그 합계에서 총급여의 3퍼센트를 뺀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 원이면 3퍼센트는 90만 원이다. 의료비가 200만 원이면 11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의 직업 관련 교육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온라인 강좌, 직무 교육, 자격증 시험료도 포함된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와 관련 없어 보이는 교육이라도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것이면 인정된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회사가 해주는 교육 외에 당신이 따로 낸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자.

신용카드 공제는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낼 때 그것이 신용카드 공제로 들어가면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할까. 의료비와 교육비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따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일반 소비에만 쓰자. 의류, 식당, 카페, 여행 이런 것들.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른다. 그래서 신용카드 혜택을 노리다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버린다. 작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얻으려고 더 큰 세금 환급을 포기하는 셈이다. 당신은 그러지 말자. 의료비 영수증 함, 교육비 영수증 함. 따로 모아둬라.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챙기면 된다. 일 년 동안 그저 모으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당신의 통장으로 돌아온다.

기부금, 세금 혜택도 받는 현명한 소비

기부금이 세금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나는 처음에 기부를 하면 그냥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순수한 기부라고 봤던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 친구가 우연히 말해줬다.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했다. 돈을 기부하는데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주니 이해가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를 만든 것이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세금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당신이 올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자. 그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당신의 과세 소득에서 빠진다.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결국 기부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당신의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금액이 클수록 절약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진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모든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과 단체에 하는 기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적십자, 국제구호단체, 종교 단체 등 사회복지 목적의 기관이 해당된다. 친구 개인에게 주는 돈이나,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다. 따라서 기부 영수증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 기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 있다.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려니까 뭔가 부정한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절대 아니다. 이건 정부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합법적인 제도다. 오히려 당신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 방식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도 절약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부를 할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의 사회초년생들을 보면, 기부금 공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매년 기부를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에서 당연히 공제받지 못했다. 얼마나 아깝던가. 특히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모르면 더 큰 손해를 본다.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기부할 때마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된다. 온라인으로 기부했다면 영수증을 다운로드하고, 현장에서 했다면 영수증을 받아둔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이 서류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된다. 복잡한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부라는 좋은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현명한 소비의 진정한 의미다.

경조사비, 혹시 이것도? 놓치기 쉬운 공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상황이 있다. 해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복잡한 공제 항목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싶은 것들 말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바로 경조사비 공제다. 결혼식에 갔을 때 축의금을 냈고,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금을 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선배의 결혼식, 할머니의 장례식. 그때마다 돈을 냈지만 영수증 같은 걸 챙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조사비가 세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무사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걸 몰랐어? 경조사비도 공제 대상이야. 영수증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매년 챙길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경조사비 공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단순히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결혼식에 입는 옷을 사거나, 장례식장까지 가는 교통비, 심지어 예물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비용이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축의금을 낼 때 영수증을 받고, 상점에서 옷을 사면 영수증을 챙기고, 교통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현금으로 축의금을 내면 나중에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다. 그때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해 동안 쌓이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가 된다.

경조사비 외에도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데, 안경점 영수증을 챙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받은 약값, 치과 치료비, 한약 비용 같은 것들도 전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다.

직장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간단하다.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그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수백만 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은 능동적으로 챙기는 사람과 그냥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매년 누적되어 인생 전체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7

세금 착각 금지! 당신의
실수를 줄이는 필승 전략

세금 착각 금지! 당신의 실수를 줄이는 필승 전략

가장 흔한 세금 실수 5가지

세금을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본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직장인들의 흔한 세금 실수들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알았더라면 수백만 원을 더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많이 보는 첫 번째 실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로 뭐든 긁는다. 그러다가 의료비를 내거나 교육비를 낼 때도 신용카드를 쓴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신용카드 공제는 일반 소비에만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내면 그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내야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어떤 카드로 내는지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두 번째 실수는 영수증을 버리는 것이다. 놀랍지만 많은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심지어 안경 구매 영수증까지 그냥 버린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세금 공제 대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모이면 수십만 원이 된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 이익에 세금이 나간다는 걸 모른다. 더 심한 경우는 투자 손실을 냈을 때 그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ISA 계좌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투자 수익에 세금이 안 나간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계속 세금을 내면서 투자한다.

네 번째는 연금을 단순한 저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똑같이 저축하는데 한쪽은 세액공제를 받고 한쪽은 못 받는다. 이건 거의 무료로 돈을 버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는 기부금 공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기부는 착한 일이면서 동시에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다. 기부 영수증을 챙겨서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기부금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그냥 손해다.

이 다섯 가지 실수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금을 신경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난다. 세금은 귀찮은 게 아니라 당신의 월급을 지키는 방어막이다.

국세청 통지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법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온 날, 나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게 무서웠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다. 혹시 내가 낸 세금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통지서를 읽어보니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고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세금 통지서가 무섭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세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공포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국세청 통지서를 받으면 비슷한 심정일 거다.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떼갔는데 또 국세청에서 통지가 오면 뭔가 자신이 한 실수가 있는 건 아닐까 싶다.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반대다. 국세청 통지서는 당신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소식인 경우가 훨씬 많다.

내가 처음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니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했는데, 내가 챙기지 않은 공제 항목들이 있었다. 기부금을 냈는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료비 영수증도 챙기지 않았고, 투자 손실도 신고하지 않았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더했더니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국세청 통지서는 당신의 세금 상황을 정리해주고 조정해주는 문서일 뿐이다. 무섭지도 않다. 오히려 당신의 돈을 지켜주는 도구다. 통지서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가 놓친 공제가 있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천천히 읽는 것이다. 급할 것 없다. 내 월급이 얼마였고, 회사에서 얼마를 떼갔고,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투자 손실 같은 것들 말이다. 만약 빠진 게 있으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보통 한 달 정도다.

두 번째는 통지서의 최종 세액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국세청이 계산한 수치를 무조건 따랐다. 그들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도 실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고 며칠 뒤에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통지서의 납부 또는 환급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반대로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기한을 넘어도 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낫다. 그런

기한들이 모두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통지서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당신의 세금을 정리해주는 것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당신의 재정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통지서가 오면 오히려 설렌다. 얼마나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마치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든다.

세금 전문가의 도움, 언제 필요할까?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 공제를 당연히 받아들였고, 연말정산도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처음엔 혼자 책을 읽으며 세금을 배워보려 했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뭐고, ISA는 또 뭐고, 손실 상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복잡하기만 했다.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헤맸다. 그러다 회계사 선배를 만나 조금씩 물어보게 됐다. 선배는 내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정도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해. 혼자 하다간 더 손해 본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다. 세무사와의 상담은 1시간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동안 놓친 공제 항목만 해도 3가지였다. 기부금, 의료비, 투자 손실. 그걸 통해 받은 환급액은 210만원이었다. 내가 혼자 짊그리 놓친 돈이었다. 그때서야 알았다. 세금은 정말로 혼자 하기엔 복잡하다는 걸.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세무사를 자주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기초적인 세금 지식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기부를 꾸준히 한다면. 혹은 올해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그럴 땐 세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당신이 놓친 부분을 찾아주고,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들은 세금을 낮추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금 전문가와 상담할 때의 비용이 걱정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 비용은 보통 10만원에서 50만원대인데, 받게 될 환급액이 이를 훨씬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명 중 8명은 상담 비용을 뺀고도 남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당신이 놓친 부분이 하나만 있어도 상담 비용은 충분히 회수된다. 결국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작은 비용으로 훨씬 큰 절세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세금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 당신이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부업 수입이 있다면. 투자 손실이 있어서 이를 상계하고 싶다면. 큰 금액의 의료비나 기부금이 있었다면.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는 게 좋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

세금 마스터의 길, 이제
당신의 재정 주치의가 되라

세금 마스터의 길, 이제 당신의 재정 주치의가 되라

나만의 맞춤형 절세 플랜 만들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세금 지식이 의미 있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절세 플랜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남의 얘기처럼 느껴진다. 나도 처음엔 기부금이 좋다, ISA가 좋다, 연금이 좋다는 걸 배웠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세무사 선배에게 한 마디를 들었다. "모든 사람의 절세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당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월급은 얼마인가. 부업 수입이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기부는 하는가.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절세 플랜의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은 월급이 350만 원이고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 반면 B라는 사람은 월급이 400만 원이지만 부업이 있고 기부금이 많다. 이들은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A는 ISA 계좌를 최우선으로 활용해야 하고, B는 기부금 공제와 부업 수입 관리를 먼저 챙겨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다. 지난 1년간 당신의 재정 활동을 돌아보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인가. 의료비는 얼마나 썼는가. 교육비는. 기부금은. 주택청약 납입액은. 투자에서 손실을 봤는가.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절세 포인트가 된다. 미리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나는 처음에 이걸 무시했다가 매년 신용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들춰가며 의료비를 다시 찾아야 했다. 정말 답답했다.

당신의 월급 액수에 따라 어떤 공제를 우선으로 챙길지도 달라진다. 월급이 낮은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보다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공제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이 높다면 투자 손실 상계나 연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세금 환급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건 수학 공식 같은 거라 한 번 파악하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다.

부업이 있다면 그 수입을 꼭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업 수입도 세금 대상이고, 경비를 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부업 수입을 아무렇지 않게 받다가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는다. 처음부터 영수증을 모으고 소득을 기록해두면 훨씬 안전하다.

투자를 한다면 손실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 ISA 계좌에서 손실을 본 금액, 일반 계좌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해에 수익과 상계할 수 있다. 나는 작은 손실이라고 무시했다가 큰 손실이 났을 때 기록이 없어서 낭패를 봤다. 그때부터는 매달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었다.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가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절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모을 수 있는가, 투자 자금이 있는가, 기부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영수증 보관함을 따로 마련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투자 기록을 남기고, 기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한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연말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 마지막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당신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절세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면 연말이 되었을 때 크게 당황할 일이 없다.

매년 바뀌는 세법,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법

세금 법규는 매년 바뀐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관리한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해는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고, 어느 해는 한도가 올랐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변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그 해의 절반이 지나있었다.

세법이 바뀐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미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 기준이 올라갔는데 예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가 늘었는데 그걸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대처법은 연초에 세법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뉴스레터를 한 번 훑어보면 된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 10분이 당신의 한 해 재정을 좌우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 기준, 연금 공제액,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매년 달라지는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 출처다. SNS에 떠도는 세금 팁은 매년 바뀐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작년에 인기 있던 절세 방법이 올해는 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 재정 공식 채널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사에게 물어본다. 몇만 원의 상담료가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는다.

세법이 복잡하고 매년 바뀐다는 건 비즈니스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다. 그런데 단지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확인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세금 마스터의 첫 번째 습관이다.

세금 지식, 돈을 부르는 최고의 투자

세금 지식이 돈을 부르는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아는가.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월급은 시작일 뿐이고, 그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을 나눈다.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계약 연봉 3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었다. 명세서를 봐도 뭐가 뭔지 몰랐다. 그냥 회사에서 준 대로, 국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세금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의무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세무사 친구와 커피를 마실 기회가 생겼다. 그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는 올해 얼마를 환급받을 거냐고. 나는 환급이라는 게 뭔지조차 몰랐다. 돈을 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매년 수백만 원을 버리고 있다고. 그 말이 충격이었다.

실제로 내 상황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랬다. 기부금 공제는 못 받고, 의료비 공제도 증빙이 없어 못 받고, 투자 손실은 상계도 안 했다. 신용카드로 쓴 것들도 제대로 공제를 못 받았다. 회사 연말정산에만 맡겨놨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해줄 뿐, 나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챙겨주지 않는다. 그걸 몰랐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세금 지식 없이는 절대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금은 단순히 내야 할 의무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월급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매년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세금 지식이 돈을 부르는 최고의 투자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주식에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세금 지식으로 내 월급의 5%를 더 지키는 것이 훨씬 확실한 수익이다. 손실도 없고, 리스크도 없다. 단지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다르게 봐야 한다. 그것은 재정의 가장 기초이자, 당신의 월급을 실제로 늘리는 강력한 도구다. 영수증 하나를 챙기는 습관, 카드 사용법을 아는 것, 투자할 때 세금을 고려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그게 바로 세금 마스터가 되는 길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세금 기초 상식

저자: 김지훈

출판사: 지혜의서가

발행일: 2026년 07월 04일

전자책 정가: 11,000원

ISBN: 발급 예정

저작권: © 2026 김지훈.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및 편집 구성은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의 기획·검수·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